

“불교사와 석굴암 공덕주는 김대정”

강우방 교수 ‘미술자료’ 66호에 기고

“불교사와 석굴암은 김대정이란 개인의 신앙과 예술적 감성의 소산이다.”

강우방(이화여대 미술사학과·사건)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곧 펴낼 <미술자료> (반년간) 66호에 기고한 ‘불교사와 석굴암의 공덕주(功德主)’를 통해, 신라의 전체정치를 옹호하고 이를 미화하기 위해 경덕왕이 석굴암을 창건했다는 역사학계의 주장에 대해 미술사학적 관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두 사찰이 건립된 시기는 정치적 대립이 일어났던 극도의 사회적 혼란기로서 국가는 이미 대립을 견딜만한 힘을 상실했고, 완성을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신라는 화염사상을 정치의 이데올로기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거로 불교사와 석굴암의 건립은 국가가 왕실이 아닌 김대정(김대견을 지칭)이란 개인의 신앙과 예술적 감성의 소산이라고 밝혔다. 즉 두 사원은 정치적 동기를 찾기 어려울 만큼 예술성이 높고 그 속에 내재한 정신 고매하다는 논지다.

강 교수는 김대정이 현세의 부모를 위하여 불교사를, 전생의 부모를



김중근 기자 gamje@buddhapa.com

위하여 석굴암을 지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30년 가까운 오랜 공사기간에 걸친 대찰을 지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석화 같은 호 이야기는 후대에 꾸며진 것이 틀림없다는 것.

이 외에도 강 교수는 김대정은 명문대가의 왕족으로 종교뿐만 아니라 미술에 남다른 조예가 있었던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의 사원건축 가운데 가장 높은 예술성을 띠고 있는 두 사찰은 국가의 정치적 소산이 아닌 예술적 통찰력이 뛰어난 공덕주 김대정이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대정 개인이 어떻게 대찰건립이 가능했을까. 강 교수는 <신당서> ‘신라전’ 기록을 토대로 김대정은 성덕왕대에 중시를 지낸 김문량의 아들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축적했고, 이를 토대로 정계에서 은퇴한 후 정치와 관련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시대적 사명을 갖고 송고한 예술품을 창조하려고 혼신을 힘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어록 번역 정확성 재검토”

송인성 교수, 한국선학회 발표회서 주장

‘번역은 번역이다’는 말이 있듯 번역에는 ‘오역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 하지만 번역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이상하리만큼 불교학계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대부분 한문으로 된 원전을 번역한다는 게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거니와 연구성과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 때문이기도 하다.

<한글대장경>이나 각종 선어록 관련 번역 문헌에 대해 정확성 여부를 다룬 검토가 없었다. 진원지는 15일 중국 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선학회(회장 현각) 월례 발표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종사 문헌인 <조당집>의 국내 번역본이 그 대상이었다.

<조당집> 번역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한 송인성 교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 조교수·사건)는 <조당집>의 유일한 원역본인 <한글대장경>의 <조당집>(183, 184권)과 법장 스님이 모두 20권 가운데 우선 1~5권을 번역해 내놓은 <조당집 주해 I>을 대상으로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책에서 모두 ‘광주의 남쪽’으로

번역하고 있는 <조당집> 권3 ‘해충(德患) 선사’ 편의 ‘광남(廣南)’이 대표적 예로, 광남은 송나라 초기 존재했던 지명이다. 뒤에 이어지는 ‘광주의 남쪽 조계산...’과 관련시켜 살펴봐도 ‘조계’는 실제로 광주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는 중국의 역사나 문화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온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역시 단어 관련 오류다. <조당집>에는 당시

‘조당집’ 번역 오류 많아 일반인도 활용하도록

의 구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구어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잘못 번역한 예다. ‘동서(東西)’는 ‘움직이다’의 뜻이므로 ‘동서로 서로 자유로우리라’(권4 약산화상(藥山和尚))가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네’로 번역해야 맞고, ‘조심하다, 주의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호여(好與)’를 ‘주의하게’가 아니라 ‘더 주어야 좋겠다’고 번역한 것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논평에 나선 박영복(충주대



중국어과) 교수는 “사전적으로 A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꼭 A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예컨대 단순히 ‘움직이다’로 번역해 버리면 ‘동서’에 들어있는 ‘반복성’과 ‘방향성’이 살아나지 못해, 약산 스님이 질문한 ‘來去(왔다갔다)하다’의 대답으로 이질(舌戩)은 단순히 글자 한 자, 자구 한 구절을 둘러싼 번역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송 교수는 “국내에서 선어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의 <선의 어록>(전 10권)을 재번역한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불교학의 수준이 우수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류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이미 나온 번역본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하고, 관련 분야의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원문을 읽고 원문을 올바르게 번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高僧 다시보기

소현 스님과 유가종풍

소현(1038~1096) 스님은 고려 중기 유가종풍을 드높였던 고승임에도 일반인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대학생들이 즐겨 보는 한국사 개설서에는 ‘보수적 귀족불교인 법상종(法相宗)은 당시 최대 문벌 귀족인 인주 이씨 가문과 연결되어 도움을 주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법상종을 크게 흥성시킨 인물로서보다 정치적 경향이 짙은 승려로 오해될 여지를 남겨둬 아쉬움을 준다.

화엄종과 더불어 고려 불교의 교풍을 대표하였던 유가종(瑜伽宗)은 화엄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불교계를 주도하였고, 스님에 이르러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일명 법상종이라고도 한다. 유가종은 현종대 현화사가 창건된 것을 계기로 대지국사(大智國師) 법경(法鏡)·혜소(慧昭) 국사(慧昭國師) 정현(鼎賢)·지광(智光) 국사(智光國師) 해린(海麟) 스님 등이 활동하였고, 스님 때에 와서 전성기를 맞이하며 무신 집권 무렵까지 유명 문벌 귀족 출신의 자체들이 유가종승으로 출가했다.

따라서 스님은 고려의 유가종을 대표하는 고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스님이 유식학 관련저술을 남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스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

스님이 입적한 곳에 세워진 비문에 의하면, 스님은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인주 이씨 가문인 이자연(李子淵)의 다섯째로 태어났으며, 대각국사

유식학 저술 32부 353권 조판 간행 유가종 사찰 총괄기관 설립 앞장

의천 스님의 어머니인 인에 태우며 동생이다. 스님은 문종 2년 지광 국사 해린에게 출가하여 늘 스승과 함께 하였고, 해안사 금산사·현화사 등 유가종 주요 사찰의 주지를 역임했다.

스님의 행적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금산사에 광교원(廣敎院)을 짓고 <법화현전(法華玄覽)>과 <유식학기(唯識記)>를 비롯한 규기(契記) 스님의 유식학 관련 저술 32부 353권을 교정하고 조판 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의천 스님이 경전을 수집하고 목욕을 간행한 사실과 비견되는 일이며, 실제로 스님은 의천 스님의 부탁을 받고 <아미타경>과 관련된 서적 13부 20권을 간행하였는데, 당시에 경(經)과 함께 논(論)을 간행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유가종의 사찰을 총괄하는 기관인 선리관(繕理官)을 두도록 왕에게 건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현장(玄奘) 스님, 규기 스님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가종 여섯 스님을 선정하여 유가종의 본산인 현화사에 영정을 모시고 전국 각지로 보냈다. 앞으로 더욱 연구가 진척되어야 할 터이지만, 고려 후기 수선사 내지 백전사 결사운동에 앞서 유가종에서 먼저 결사운동이 행하여진 것도 스님의 이러한 정신과 실천성을 계승한 것이 아닐까...

이처럼 스님은 당대의 최대 문벌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오로지 유가의 계통을 바로잡고 민중들에게까지 종풍을 널리 펼치고자 노력하였던, 고려 유가종을 대표하는 고승이다. **한원규/동국대 강사**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 내년 5월 열린다

30여 불교학술단체 대표자 결의 대회장에 목적배 교수 추대

전국 규모의 불교학 대회가 내년 5월 3~4일 동국대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학회를 비롯해 불교학연구회, 인도철학회, 고려대장경 연구소 등 30여 개의 불교 학술단체 대표자들은 8일과 12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회장에는 목적배 한국불교학회장(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을, 조직위원장은 해주 스님(불교학연구회장), 단체인협의회장은 장홍식 동국대미술사학회장(동국대 불교학과)을 추대하기로 했다. 조직위원장 산하에는 총무, 홍보, 학술, 섭외, 편집, 기획, 전산 부위원회를 두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또 불교학 결집대회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계의 학술 단체장들이 주축이 된 ‘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목적배 회장은 “내년 결집대회에는 불교학뿐만 아니라 불교문학, 불교사학, 불교예술, 불교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하며 연구하는 2백여 명의 불교 인재를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단순한 고전문헌연구나 학술 논문 발표회의 차원을 넘어 불자들이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참신한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등 30여 개 학술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내년 5월초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라고 결집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목적배는 “대회 시작 전부터 어느 일정분야를 참가자들에게 지정해 주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들이 어렵게 된다”며 “어떤 분야에서 무슨 방법으로 연구했는지 자신의 연구결과가 교단사적으로 불교 결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모임에는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동양미술사학회 △인도철학회 △한국선학회 △회당학회 △고려대장경연구소 △보조사상연구원 △불교문화연구원 △원광대학교 △전지불전연구소 △동국대 불교대학 △위덕대 △중앙승가대 △진각대 등 26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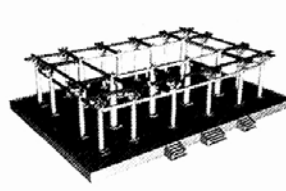
안동 봉정사 극락전 해체 보수작업 착수

2003년 6월 완료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인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사지)이 해체 보수된다.

문화재청은 6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10월 해체 보수 작업에 착수, 2003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봉정사 극락전은 1972년 수리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처마와 공포 부재에 처짐이 발생하고, 벽면에 균열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난 8월 2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건물의 보존을 위해 해체 보수하기로 결정했다.



부석사 무량수전 3차원 영상 재건축

이현수 교수 CD·책 발간

국보 제18호 경복궁 부석사 무량수전이 디지털 3차원 영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이현수 교수는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석사 무량수전을 3차원 영상으로 재건축하고, 그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량수전>을 책과 CD로 발간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무량수전의 시공과정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CD에는 한반도 해체 복원된 적이 없는 무량수전의 건축과정을 3차원 영상에 담았다. 이은자 기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남이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말을 피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 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동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 위치안내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입구 직진 200m정도에 오면 우측으로 파란색 간판 레스토랑(마음과아름)을 약간 지나 맞은편 좌측 골목 창림 빌딩 2층 204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대표전화 : 02) 679-5902

박희준 식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3일이면 레이키요법(氣療)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사람과 빛이 담겨있는 우주의 생명 기운(에너지)입니다. 이것을 바로 끌어다가 질병도 치료하고 생명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을 3일만에 하는 것이 박희준 식 레이키입니다.

단 3일간의 교육으로 이런 능력자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원구사 포함), 호스피스 봉사자, 간병봉사자
 - 만성병 환자, 성인병 환자, 그 가족
 - 임신, 태고, 순산을 원하는 부녀자나 그 남편
 -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각성을 원하는 분
 - 활동력자로서 활동하려는 분 등
- 레이키 요법의 효과
 - 사람은 병이 들면 전적으로 기운과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레이키 요법은 이같은 기운과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 병이 낫는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레이키 요법은 세계에 제일 효과가 높은 리랙세이션(잠을 잘 자게 하는)법입니다.
-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제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가족(유학)을 가 있는 자녀에게도 여기서 면제치료(원격치료를) 해주고 기운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시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인정증을 발행합니다. 박희준씨는 국제레이키 마스터 명단에 올라 있는 한국유일의 레이키 마스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의 레이키계에서도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레이키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이 됩니다.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경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809호실)

핸드폰 019)392-2557, 018)850-1680

운세 30초 이내 적중! (명리학)

- 공개 감정(실전 30초 이내) 월~금 16시~18시
- 전화상담 전문인 양성 (기초가 된 분은 누구나 할 수 있음)
- 교재 (사주첩경, 이석영 저)
- 명리 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5년
- 명리학으로 생애에 대한 모든것은 물론 코에 있는 점까지 조명해내는 이론, 신기합니다.
- 통장으로 입금되는 상담, 이제는 핸드폰으로 결제되는 시대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 위치 : 지하철 7호선 장승백이역 하차 3번출구 100M 전방 종로약국 근처에서 전화요망!
- 연락처 : 02)822-0595 051)758-3427 (토요일/일요일) 011)498-5067

명리연구인 김진동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

“오복을 가져오는 세원년세에 용의 꿈을 꾸세요”

순공 소중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용자 말(말마래 사)그림, 龍자그림(수액과 작년) 특별보시!

2000년 대동명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말마래(용자)용자

한국 수액과 명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독사룡 및 유서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계, 가정분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문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안성취 영험기도도방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돌담아미타부처님영험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